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

황매향(黃梅香)*

논문 요약

본 연구는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관계 변인, 즉,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의 상대적인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 수집한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 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에서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각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 관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보면, 초등학교 남녀, 중학교 남녀 집단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회적인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약화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학생의 경우가 더욱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결과의 교육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주요어 : 학업성취도,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I. 서론

본 연구는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가운데 사회적 관계 변인, 즉, 가족과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등의 상대적인 영향력 차이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학업수행은 학생들의 주요한 발달과업이고, 학업수행의 결과 즉 학업성취도는 학교적응의 중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학생 자신을 비롯한 학부모와 교사 모두 학업성취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러한 관심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까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다. 오성삼과 구병두(1999)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중 학업성취와 관련된 논문이 813편에 달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학업성취 결정요인 가운데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은 전통적으로 지능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들이 영향력은 학생들의 학년이 높아질수록 약화되기는 하지만, 쉽게 변화시키기 어렵다(Arbona, 2000). 학업성취 결정요인에 대한 최근 연구(김미란, 2005)에서도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선수학습, 기억력, 추론능력, 학교일반 자아개념, 지적흥미조작, 독해력, 자율성 보장, 교과에 대한 태도 등으로 나타나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변인은 인지적 특성이고, 인지적 특성 중에서도 선수학습의 결정력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은 변화시키기 힘든 요인들보다는 비록 상대적 영향력이 작더라도 변화가 가능한 사회적 관계에 관심을 두고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부모, 교사, 친구 등 주변의 중요한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지지받는 학생들은 학업성취에 대한 동기가 높으면서 실제 높은 학업성취를 나타낼 것이다. Arbona(2000)의 보고에 따르면, 미국은 90년대 들면서 사회적 관계와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관련 행동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학업성취의 중요한 요인으로 관심을 받아오던 사회경제적 지위와 교수학습 변인뿐 아니라 부모 변인이나 친구와의 관계도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소개되고 있다(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Wentzel & Wigfield, 1998). 우리나라에서도 학업성취도와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고, 긍정적인 인간관계가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박문찬, 1988; 박승우, 2000; 박영신·김의철, 2003; 전병두, 2000; 정경숙, 2000; 정은경, 1988; 조항, 2004; 최동렬, 2004).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학생과 부모, 학생과 교사, 학생과 친구와의 관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의 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

인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중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친구들 때문에, 교사의 미움을 받아서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고하는 학부모들의 상식이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학생들의 학업환경 개선의 기초 자료로 삼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 대상별로 각각 연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의 중요한 대상은 부모, 교사, 친구로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각각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검토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와의 관계는 가정변인의 하나로 학습자가 내면에 가지고 있는 학습자 변인과는 구분되는 환경 변인의 하나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김미란, 2005; DiPerna, 1999). 학령기전, 초등학생, 중학생들의 부모관련 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종합한 Hess와 Holloway(1984)는 어머니와 아동의 언어적 상호작용, 부모와 아동의 관계의 질, 훈육 및 통제 전략, 아동에 대한 부모의 신뢰, 부모의 성취기대 등 다섯 가지 부모관련 변인이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모관련 변인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경제적 지위의 영향을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지고 있다(Garmezy, 1991; Luster & McAdoo, 1994; Valencia, Henderson, & Rankin, 1985). 박영신과 김의철(2003)은 토착심리학적 접근방법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를 개관하면서, 초·중·고 모든 연령집단에서 부모의 자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관계를 자아효능감이 매개할 가능성을 제안하였다. 그 외 여러 선행연구에서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가 높은 학업성취를 예언하고 부모와의 갈등이 학습부진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김봉식, 1979; 박병양, 1980; 정경숙, 2000; 정은경, 1988).

교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오래 전부터 관심을 가져왔다(윤희숙, 1974).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메타분석(오성삼·구병두, 1999) 결과,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가운데 가장 큰 효과크기를 지닌 변인군은 교수-학습 변인군($e.s.=.69$),

학생 변인군($e.s.=.47$), 교사 변인군($e.s.=.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 변인군과 교사 변인군은 모두 학교에서의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변인으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Schofield(1981)와 Watkins(1997)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관계와 학업성취도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고, 박문찬(1988), 홍점표와 박종흡(1999), 조항(2004)의 연구에서도 바람직한 교사와 학생의 인간관계가 학교교육 효과의 필요조건으로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송병숙(1988)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가 낮은 학생들일수록 교사와의 인간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은정(2002)의 연구에서는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 즉, 교사와의 관계는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영향력이 다른 변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친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조항(2004)의 연구에서 친구로부터 사회적인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과 포부수준이 높고 친구로부터 따돌림을 많이 받는 청소년일수록 학업성적과 포부수준이 낮았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정(2002)의 연구에서도 학교 내 사회적 자본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량을 보이는 변인은 또래관계인 것으로 밝히고 있다. 특히 초기 아동기 또는 초기 청소년기 따돌림 경험은 이후 사회적·학업적 문제의 중요한 예측변인이다 (Buhrmester, 1990). 4학년과 8학년을 대상으로 한 미국 통계청 연구에서 친구의 영향력을 연령집단별로 검토한 결과 역시, 친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초등학교 4학년 시기의 친구의 영향력이 높고, 중학교 2학년(8학년)이 되면서 친구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Johnson, 2000). 여기에 대해 청소년 시기에는 친구들로부터의 사회적 압력이 학업수행과는 동떨어진 과외활동이나 나아가 비행에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령집단과 자료수집 과정이 미국 통계청 연구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친구 영향력의 감소 현상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도 나타날 것인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부모, 교사, 친구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최동렬(2004)의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학업성취도 높은 집단이 학업성취가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더 친밀하고 교사와의 관계도 더 친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와의 관계는 학업성취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해 본 결과, 교사와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순으로 영향을 적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고등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최지은·신용주, 2003)에서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아버지의 사랑, 출생순위,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은 학업성취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학업성취도와 동등하게 보기는 어렵지만, 고등학생들에게 교사와의 관계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일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연령집단에서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을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연령집단에 걸쳐 동일하게 나타날 것인지 또는 연령집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인지를 두가지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4년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 자료로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제공받아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도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학생 대상 1차 조사와 중학생 대상 2차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이다(이경상·조혜경, 2004). 초등학생 대상 1차년도 패널조사에서는 전국 15개 도시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844명의 4학년 학생에 대한 학생용 설문과 가구용 설문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844명의 4학년 초등학생의 학생용 설문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4학년 초등학생 중 남학생은 1,524명(53.6%), 여학생은 1,320명(46.4%)이었다. 중학생 대상 2차년도 패널조사에서는 전국 15개 도시의 중학교에 재학 중인 3,449명의 2학년 학생에 대한 학생용 설문과 가구용 설문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3,449명의 2학년 중학생의 학생용 질문지 중 미완성 질문지 241개를 제외하고 3,208개의 내용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분석에 포함된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중 남학생은 1,603명(50.0%), 여학생은 1,605명(50.0%)이었다.

2. 연구도구

연구도구는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제작한 질문지¹⁾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질문지와 중학

1) 질문지의 내용은 청소년패널 홈페이지(<http://www.youthnet.re.kr/>)에서 볼 수 있다.

<표 1> 척도별 신뢰도 계수(Cronbach α)

척도	문항수	Cronbach α	
		초등학생	중학생
학업성취도	8	.7117	.7653
부모와의 관계	10	.8275	.8979
교사와의 관계	3	.5479	.7244
친구와의 관계	4	.7261	.6985

생 질문지 문항 중 동일한 문항을 선택하였고, 학업성취도 8문항, 부모와의 관계 10문항, 교사와의 관계 3문항, 친구와의 관계 4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을 분석하였다. 문항의 내용상 필요한 경우 역채점하였다. 학업성취도는 '매우 못하는 수준'(1점)에서 '매우 잘하는 수준'(5점)의 5점 Likert 척도이고,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이다. 조사항목 중 각 척도로 볼 수 있는 다문항 항목에 대해서는 신뢰도(내적 합치도)를 검증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 α)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친구와의 관계는 신뢰도 계수가 .60이하로 나타났지만 다른 척도들은 신뢰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의 자료는 초등학교 패널연구(2004-2008년)의 1차년도 조사자료와 중학생 패널연구(2003-2007)의 2차년도 조사자료로 자료수집은 모두 2004년에 실시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측정수준에 따라 기술통계,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다룰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표 3>에 제시하였다. 각 변인들은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정상분포를 보이고 있어 추리통계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되었다.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가 좋은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와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는 보통에서 관계가 좋은 쪽에 평균이 존재하고 있는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보통에서 오

<표 2>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관계 수준

	사례수	최소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경도	첨도
학업성취도	2828	1	5	3.35	.58	-.048	.346
부모와의 관계	2815	1	5	3.61	.71	-.224	-.371
교사와의 관계	2832	1	5	2.74	.90	.213	-.263
친구와의 관계	2822	1	5	4.12	.80	-.889	.297

<표 3> 중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적 관계 수준

	사례수	최소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경도	첨도
학업성취도	3197	1	5	3.15	.64	.142	.556
부모와의 관계	3196	1	5	3.39	.70	-.142	.291
교사와의 관계	3204	1	5	2.61	.82	.002	-.145
친구와의 관계	3202	1	5	3.79	.68	-.251	-.142

히려 관계가 좋지 않은 쪽에 평균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최지은과 신용주(2003)의 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은 교사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와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고, 학생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관계의 정도는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서로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실제로 각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 회귀분

<표 4> 초등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

	학업성취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418**		
교사와의 관계	.224**	.328**	
친구와의 관계	.281**	.208**	.130**

** $p < .01$

석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사회적 관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세 가지 사회적 관계변인의 총설명량은 21%이다.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보면, 부모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남자 아동 집단과 여자 아동 집단 각각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 <표 7>과 같고, 사회적 관계는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 모두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에서도 남자 아동과 여자 아동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전체 변인들의 설명량으로 볼 때, 남자 아동의 경우 22.3%로 18.1%로 나타난 여자 아동에 비해 사회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와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초등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337**	.416	.173	578.581**
	2	친구와의 관계	.175**	.450	.202	350.518**
	3	교사와의 관계	.091**	.458	.210	244.373**

** $p < .01$

<표 6> 초등학교 남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364**	.432	.187	338.908**
	2	친구와의 관계	.189**	.470	.219	208.264**
	3	교사와의 관계	.053**	.472	.223	140.779**

** $p < .01$

<표 7> 초등학교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296**	.377	.142	214.164**
	2	친구와의 관계	.158**	.410	.167	130.065**
	3	교사와의 관계	.129**	.428	.181	96.387**

** $p < .01$

3.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학업성취도와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와 같고, 학생들의 모든 사회적 관계는 학업성취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상관관계의 정도는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에 비해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학업성취도와 친구와의 관계의 상관계수가 특히 낮아졌다.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각각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방법에 따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고, 사회적 관계는 모두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등 세 가지 사회적 관계변인의 총설명량은 8.1%로 초등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다.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를 보면, 부모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조금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남학생 집단과 여학생 집단 각각에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 <표 11>과 같고, 사회적 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학업성취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 변인의 상대적 영향력 차이에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아, 부모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음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교사와의 관계보다 큰 영향을 미치

<표 8> 중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사회적 관계의 상관관계

	학업성취도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264**		
교사와의 관계	.125**	.200**	
친구와의 관계	.120**	.195**	-.049**

** $p < .01$

<표 9> 중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233**	.264	.070	238.264**
	2	교사와의 관계	.082**	.274	.075	129.099**
	3	친구와의 관계	.079**	.285	.081	93.355**

** $p < .01$

<표 10> 중학교 남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218**	.248	.062	104.004**
	2	교사와의 관계	.092**	.260	.068	57.630**
	3	친구와의 관계	.073**	.270	.073	41.476**

** $p < .01$

<표 11> 중학교 여학생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R	R^2	F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267**	.301	.091	157.943**
	2	친구와의 관계	.094**	.314	.099	86.756**
	3	교사와의 관계	.058**	.319	.102	59.879**

** $p < .01$

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관계 전체 변인들의 설명량으로 볼 때, 여학생의 경우 10.2%로 7.3%로 나타난 남학생에 비해 사회적 영향을 조금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논의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과 학업성취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중요한 사회적 관계에 해당하는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를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모두 학업성취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Arbona(2000)의 동향분석 연구와 우리나라의 여러 연구(박문찬, 1988; 박승우, 2000; 박영신·김의철, 2003; 전병두, 2000; 정경숙, 2000; 정은경, 1988; 조항, 2004; 최동렬, 2004) 등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관된다. 즉, 학생들이 그들의 부모, 교사, 친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학업성취도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중 어떤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각각 실시하였다. 먼저, 초등학교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사회적 관계 전체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있어 초등학교 집단은 설명량 21.0%, 중학생 집단은 설명량 8.1%로 차이를 보여,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반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동렬(2004)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 변인들의 총 설명량이 18.5%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약해진다고 결론내리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와 최동렬의 연구결과는 모두 횡단적 자료로 정확한 발달과정을 확인했다고 볼 수 없고, 사회적 관계와 학업성취도의 관계가 발달적으로 어떤 변화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여 더욱 결과에 대한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발달과정을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보면, 사회적 관계의 총설명량이 초등학교 남학생은 22.3%, 초등학교 여학생 18.3%로 초등학생의 경우는 남학생이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반면, 중학교 남학생은 7.3%, 중학교 여학생은 10.2%로 중학생의 경우는 여학생이 사회적 관계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의 경우,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 비해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로 인해 적응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 일반적 경향성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남학생들의 욕구가 성장과정을 통해 또는 학교경험을 통해 좌절 또는 억압되면서 그 영향력도 축소될 가능성, 여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일 가능성, 연구결과의 차이가 갖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Kindlon과 Thompson(2000)의 임상 관찰에서는 성장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에 대한 남아들의 욕구가 억압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Kerr(1997)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역할 사회화의 결과가 만14세에 두드러진다고 보고한 것에서 이러한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으나,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넷째, 중다회귀분석 결과 산출된 회귀계수를 통해 학생들의 부모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중 어떤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일관되게 나타난다. 교사와의 관계와 친구와의 관계는 학교급별, 성별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데, 각 학교급별, 성별 회귀계수를 정리해 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적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비교

종속변인	단계	독립변인	표준화 계수(β)			
			초등학생		중학생	
			남	여	남	여
학업성취도	1	부모와의 관계	.364**	.296**	.218**	.267**
	2	친구와의 관계	.189**	.158**	.073**	.094**
	3	교사와의 관계	.053**	.129**	.092**	.058**

여학생들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면서 전반적인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그 상대적 영향력의 양상도 그대로 유지되는데 비해 남학생들은 여러 가지 변화를 보인다. 먼저, 중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사회적 관계의 영향력이 감소하는데, 이것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이 사회적 관계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발달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상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가에 관한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선불리 해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 문제 또한 후속연구를 위한 과제로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초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는데, 여학생의 경우보다 부모와의 관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남학생들은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고,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는 영향과 크게 차이를 보인다. 즉, 초등학교 남학생들의 학업수행 과정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특히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교사와의 관계는 초등학교 시기보다 중학교 시기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 중학생 시기에는 친구와의 관계보다 더 강하게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학생들보다도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중학교 남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동렬(2004)의 연구에서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의 교육적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먼저, 학생들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맺고 있는 인간관계가 학생들의 학업수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했다는 의의를 가지며, 학생들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파악, 보다 긍정적인 대인관계 형성의 조력, 대인관계 갈등으로 인한 학습부진의 정확한 진단 등이 학교현장에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학생의 학습부진에 대해 비난하거나 학업성취도로 학생들을 차별하는 부모, 교사, 친구들의 행동이 오히려 학습부진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맺고 있는 여러 사회적 관계들 가운데 부모와의 관계가 학업성취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라는 사실이 초등학생, 중학생, 남학생, 여학생에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최동렬, 2004; 최지은·신용주, 2003)의 결과와 다르다. 즉, 중학교 이하의 자녀의 학습부진의 원인을 교사나 친구에게 돌리기 이전에 부모 자신과 자녀의 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면, 먼저, 초등학생 집단과 중학생 집단에서 동일한 회귀모형을 검증하여, 발달적 차이를 보려고 시도하였으나, 본 연구의 자료가 횡단적 자료가

기 때문에 그 결과는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5년동안 계속 자료가 축적되는 패널연구의 자료로, 종단적 자료를 통한 검증이 향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도구는 청소년패널조사의 설문지로 각 사회적 관계 변인의 구인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좋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 않은 경우나 아버지와의 관계는 좋지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가 구분되지 못하였고, 어머니와의 관계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보지 못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출발점으로 하여, 각 사회적 관계 변인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미란 (2005). 초등학생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및 학습지원 가정환경과 학업성취의 관계. 교육연구논총, 26, 67-97. 대전: 충남대학교.
- 김봉식 (1979).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장래희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문찬 (1988). 국민학생이 지각한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학습태도 및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박병양 (1980). 학습부진아 유형분석에 관한 기초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박승우 (2000). 교사-학생의 인간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 박영신·김의철 (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청소년학연구, 10, 139-165.
- 손희준 (1989). 고등학생의 우울성향과 학교적응의 상관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송병숙 (1988). 아동의 교사에 대한 지각이 자아개념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오성삼·구병두 (1999). 메타분석을 통한 한국형 학업성취 관련변인의 탐색. 교육학연구, 37, 99-122.
- 윤희숙 (1974). 교사-아동간의 인간관계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육연구, 43, 47-57.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 이경상·조혜영 (2004).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I.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전병두 (2000). 교사 관련변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2, 177-186.
- 정경숙 (2000).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성격 및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아주대학교.
- 정은경 (1988). 가정환경·성격 및 학업성적 간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정은정 (2002). 중학생의 학업 성취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 조항 (2004). 중학생의 친구관계, 교사관계와 학업성취 및 일탈행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 최동렬 (2004). 학생의 사회관계 친밀도와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최지은 ·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학가정학회지*, 41, 199-210.
- 홍점표 · 박종흡 (1999). 교사 · 학생간의 친밀한 인간관계가 학습습관 ·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12, 91-118. 경남: 창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Arbona, C. (2000). The development of academic achievement in school-aged children: Precursors to career development.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3rd ed., pp. 270-309).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Buhrmester, D. (1990). Intimacy of friendship,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adjustment during preadolescence and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1, 1101-1111.
- DiPerna, J. C. (1999). Testing student models of academic achievement.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Hess, R. D. & Holloway, S. D. (1984). Family and school as educational institutions. In R. D. Parke (Ed.),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Vol. 7, pp. 179-222).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Johnson, K. A. (2000). The peer effect on academic achievement among public elementary school students. *Center for Data Analysis Report* No. CDA00-06, May 26, 2000.
- Kerr, B. A. (1997). *Smart Girls: A New Psychology of Girls, Women, and Giftedness* (Revised Ed.). Scottsdale, AZ: Great Potential.
- Kindlon, D. & Thompson, M. (2000). *Raising Cain: Protecting the emotional life of boys*. New York: Balentine Books.
- Maslow, A. H. (1970).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Harper and Row.
- Luster, T. & McAdoo, H. P. (1994). Factors related to thee achievement and adjustment of young African American children. *Child Development*, 65, 1080-1094.
- Schofield, R. (1981). Teacher effect on cognitive and affective pupils outcomes in elementary school mathematic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3, 462-471.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1266-1281.
- Valencia, R. R., Henderson, R. W., & Rankin, R. J. (1985). Family status, family constellation, and home environmental variables, as predictors of cognitive

performance of Mexican American childre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 323-331.

Watkins, T. D. (1997). Teacher communication, child achievement, and parent traits in parent involvement models. *Th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91, 3-14.

Wentzel, K. R. & Wigfield, A. (1998). Academic and social motivational influences on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0, 155-175.

* 논문접수 2006년 5월 10일 / 1차 심사 2006년 7월 22일 / 2차 심사 2006년 8월 10일

* 황매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교육학과에서 교육상담으로 석사 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인교육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청소년 발달문제와 상담”, “청소년 학업상담”, “상담과 심리검사”, “진로탐색과 생애설계”, “사례로 배우는 진로 및 직업상담” 등이 있다.

* e-mail: maehyang@ginue.ac.kr

Abstract

The effect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Students

Hwang, Mae-h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social relationships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Korean elementary and junior-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from Korea Youth Panel Survey(KYPS) of 2004 were analysed for this study. The sample consisted of 1,524 boys and 1,320 girls from 4th grade of elementary schools and 1,603 boys and 1,605 girls from 2nd grade of junior-high schools in Kore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all social relationships(with parents, teachers, and peers) were positively correlated to academic achievements; secondary, the relationship with parents was the most important variable to predict the academic achievement in both boys and girls; lastly, the effects of social relationship decreased from elementary to junior-high. These result were discussed based on the previous findings and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academic achievement, social relationship, elementary school, junior-high school, parent-relationship, peer-relationship, teacher-relationship

*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